

“윤석열, 야권 대선후보?...언급 않는 게 바람직”

문 대통령 취임 4년 회견 주요 내용

문자폭탄 예의 갖추고 배려해야
남은 1년 한반도 평화 마지막 기회
김오수 총장 선거 중립 걱정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한껏 몸을 낮췄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논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춘추관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이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특별연설은 예정된 1시간을 10분 가량 넘겨 이어졌다.

문 대통령에게 던져진 첫 질문은 '지난 4년간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느냐'였다. 문 대통령은 주저 없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또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이라며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자세를 낮췄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 대조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며 사실상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 현행 인사청문제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고 했다. '무안주기' 식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으려면 '비공공 도덕성 검증-공개 정책 검증'이 필요하며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과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하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옛날에는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 시대정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보다 공감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문파'의 문자폭탄 관련 질문에 대해 SNS 시대에 문자로 의견을 표현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저를 지지할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자를 해주시길 아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직접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후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직접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후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직접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후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사청문 심사 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임에도 단호한 어조로 남다른 각오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신뢰 되찾아 지지율 회복이 우선 과제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행동 나서겠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송갑석 의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서구갑·사진)이 대선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그의 역할과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당장, 그의 어깨에는 정권재창출을 실현할 결출한 대선 전략 마련이라는 책무가 지워졌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호남 민심 창구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10일 이뤄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송 위원장은 '민심'을 강조했다. 민심과 함께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 보인다. ▲'민생은 민심이 고, 개혁은 당심'이라는 해석이 있다. 굳이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민생을 앞세우면서 차분하게 개혁을 진행하는 기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는. ▲전략기획위원회의 핵심 책무는 대선 기획, 경선 관리지만 무엇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다.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행동에 나서겠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은. ▲민감한 문제다.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역시도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경선 연기 여부보다는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민에게 드릴 말이 있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민심의 현장으로 내려가겠다. 민생의 벼빚목으로 거듭나 정권재창출로 보답하겠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내년 국고 3조·8조 시대 연다

시, 12일 지방재정협의회 16건 건의
도, 국고 건의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신규사업 발굴·대응 전략 수립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국비 3조원, 국비 8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정부부처 대응 전략 수립, 정치권 총력 지원 요청 등에 나선다.

우선 광주시는 1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 예산안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사업 16건(사업비 5356억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2650억원(총 사업비 2조 2108억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2년차 예산 1526억원(4116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528억원(5조2192억원) ▲송정역 복합환승 중심

선상역사 증축 100억원(500억원) ▲장륙습지 훼손지 복원 10억원(200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80억원(1500억원)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10억원(9500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40억원(290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80억원(32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는 5월 말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로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 발굴 및 논리 개발, 계속사업의 신속한 추진 근거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10일 오전 서재필실에서 '2022년 국고 건의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신규 국비 건의 137건(사업비 5421억원), 계속사업 119건(2조6464억원)을 검토했다. 이들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대상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나누고 사전 기획안 마련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22년 국고 8조원 시대를 열 방침이다.

전남도의 2022년 주요 건의 사업은 ▲국도 승격 및 국도·국지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조기 구축 ▲조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광양항 '퀵' 부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배추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도 포함됐다. 광역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2022년 반영해야 할 핵심 현안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중앙부처 장·차관 면담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선진기술 이전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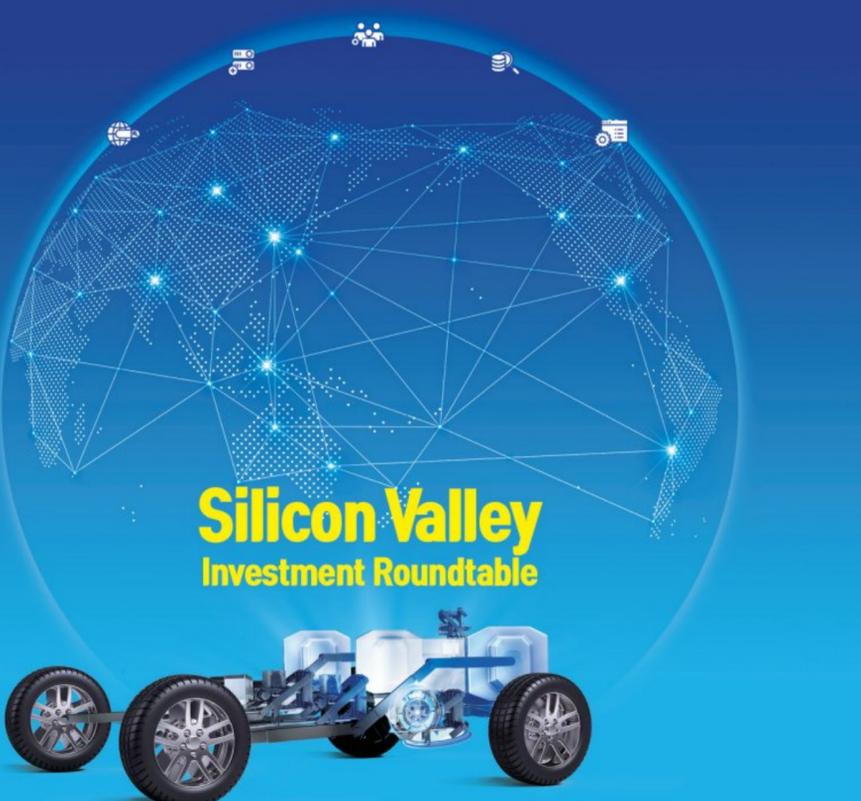
주제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기회

일시 '21. 5. 11(화) - 12(수) 09:00 - 12: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층 K스튜디오 (유튜브, 헬로광주 인터넷방송 생중계)

내용 세계-한국 배터리 산업 관련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 등

문의 062) 613-6042



Silicon Valley

Investment Roundtable